‘명절 특수’ 과일농가 울고 축산농가 웃고

농협 전남본부, 1~2월 출하량 배 60%·사과 70%↓…과일 가격 ‘들썩’

‘설선물 상한액 20만원’ 광주축협, 선물세트 늘리며 도축량 확대

지난해 잇따른 기상이변으로 생산량과 저장량이 급감한 주요 과일 가격이 들썩이고 있다.

수확량이 늘어난 수산·축산 농가는 명절 선물가액이 상향되면서 모처럼 웃을 것으로 보인다.

1일 농협 전남본부에 따르면 올해 1~2월 주요 과일 출하량은 전년에 비해 50%~7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주가 주산지인 배의 경우 설 명절을 맞아 출하량이 전년(1만3800t)보다 60% 감소한 5500t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나주시에 따르면 올해 설 연휴기간 지역농협을 통해 출하되는 나주 배 물량은 약 936t으로, 전년(2735t)보다 65.8%(1799t) 감소했다. 이는 배 개화기인 지난해 3월 말부터 4월 초 무렵 기온이 영하 4도까지 내려가는 저온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배 재배면적 1943ha 중 50%인 972ha가 저온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봄철 잦은 냉해와 여름철 긴 장마와 태풍 등을 겪은 사과 역시 지난해 1700t에서 510t으로 70% 급감할 것으로 전망했다. 단감은 지난해 절반 수준(50%)인 1050t이 출하될 것으로 보인다.

명절을 열흘 가량 앞두고 광주서 판매되는 사과와 배 가격은 전년보다 무려 67~85% 급등한 상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이날 기준 광주 양동시장에서 팔린 사과(후지) 10개 가격은 3만7000원으로, 1년 전(2만원) 보다 85%(1만7000원) 올랐다. 일주일 전(3만5000원)에 비해서도 5.7%(2000원) 상승했다.

배(신고) 10개 가격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66.7%(2만원) 껑충 뛰었다.

단감 10개 값은 1만2000원으로, 전년과 같지만 평년(1만333원)에 비해서는 16.1%(1667원) 올랐다.

aT 측은 설 명절 “사과의 경우 착색, 당도저하, 과실 크기가 좋지 못해 설 출하용 대과 비중이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과와 배 모두 설 성수기 출하량 감소로 가격이 오름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어획량이 늘어난 수산업계에서는 명절 특수가 맞물리면서 거래량이 늘어나는 추세다.

수협 광주공판장이 설 명절을 보름 앞두고 3주 동안(1월7~27일) 주요 수산물 28개 품목 위판량을 집계해보니, 총 318.5t으로, 전년(12월20일~1월9일) 306.6t보다 12t(3.9%) 가량 증가했다.

이들 품목의 위판금액은 22억500만원에서 26억1000만원으로, 18.4%(4억500만원) 증가하며 거래량보다 더 높은 증가 폭을 나타냈다.

이 기간 동안 주요 명절 성수품을 보니 코다리명태 거래량이 12.8배(1175.7%) 늘어나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굴비의 재료가 되는 참조기 거래량은 3.7t에서 7.8t으로 2.1배(100.6%) 뛰었다. 전 부쳐먹거나 탕거리로 쓰이는 명태 거래량도 15.6%(4.9t) 증가한 36t이 거래됐다.

거울 별미 매생이 거래량도 61.7% 증가했고, 새조개(8.8배), 명태포(2.7배), 멸치(2배), 갈치(96.9%), 고등어(59.4%), 오징어(24.2%), 전복(20.5%), 숫꽃게(17.2%) 등도 거래량이 늘었다.

설 선물 상한액이 20만원까지 오르면서 축산 농가도 대목 챙기기에 분주하다. 광주축산농협은 오는 10일까지 보름 동안 설 특별 판매를 진행하며 20만원 상당 선물세트를 늘리기 위해 도축량을 지난해 추석 대비 50두 증가한 200두로 확대했다.

양동시장에서 이날 판매되는 한우 등심 1등급 100g 가격은 8500원으로, 1년 전보다 13.3% 상승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3056.53 (+80.32)
↑	코스닥	956.92 (+28.19)
↑	금리 (국고채 3년)	0.994 (+0.023)
↓	환율 (USD)	1116.50 (-2.30)

광주은행, 12억원 특례보증

동구 소상공인 최대 3천만원 지원

광주시 동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2억원 규모 특례보증이 시행된다.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지난 29일 광주시 동구, 광주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일 밝혔다.

특례보증대출 규모는 총 12억원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광주은행은 5000만원을 별도 출연했다.

이 특례보증대출은 광주시 동구 소상공인 업체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대출기간은 최장 5년이며, 최대 0.3%포인트까지 대출금리를 특별우대한다. 대출을 받은 뒤 2년 동안은 광주시 동구가 2.5% 이자차액을 보전해준다.

한편 광주은행은 지난 2019년부터 광주시 동구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에 136개 업체 총 30억원 대출을 지원했다. /백희준 기자 bhj@

“집에서라도 설빔 챙겨주세요” 1일 롯데백화점 광주점 직원이 8층 매장에서 설빔으로 단장할 수 있는 다양한 아동 의류를 선보이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설 명절 수입 신선란 2000만개 풀린다

설 명절 이전까지 수입 신선란 약 2000만개가 시중에 풀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설 명절 이전 수입 신선란 약 2000만개, 국내산 신선란 약 180만개, 수입 계란가공품 약 565만개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수입 신선란은 오는 5일까지 1384만개를 들여오는 것이 확정됐고, 10일까지 700만개 가량을 추가 수입할 계획이다.

수입 신선란은 지난달 28일부터 한판(30개)당 4450원에 공급 중이다. 지난달 29일 기준 국내산 달걀 도매가격 한판당 5757원보다 1000원 이상 저렴하다.

광주 양동시장에서 판매된 특란 한판 가격은 7130원으로, 1년 전(4200원)보다 69.8%(2930원) 높은 수준이다. 광주 대형마트 판매가격은 전년보다 33.4% 상승한 7990원으로, 8000원에 육박했다.

전날까지 식당, 달걀 가공업체, 소매업체 등에 팔린 수입 신선란은 약 140만개다.

국내산 신선란은 1월 28일~2월 10일 하루 평균 13만개씩 수도권 농협 하나로마트 42개 매장에서 판매 중이다.

수입 달걀 가공품은 난백분 267만개, 난황냉동 89만개, 난황건조 209만개가 이미 도입돼 통관을 기다리고 있다. 할당관세 0%를 적용받는 달걀과 달걀가공품은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수입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세얼굴

“어려움 처한 소상공인 지원 최선 다할 것”

장대교 광주·전남중기청장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직면한 지역 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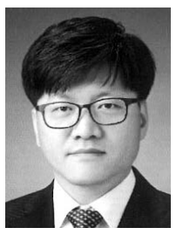
1일 제22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청장으로 취임한 장대교(50) 신임 청장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취임식을 생략한 대신, 이날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살피기 위해 관련 대출을 담당하는 신용보증재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을 방문하는 등 지역 상황 파악에 나섰다.

구례 출생인 장 청장은 순천고와 성균관대 정보공학과를 졸업했다. 기술고시 32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특허청 전산사무관을 시작으로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조정관실 창의혁신팀장, 기술혁신국 기술협력과장, 중소기업정책국 정책분석과장, 경영판로국 공공구매판로과장, 성장지원정책관 기업금융과장, 상생협력정책관 상생협력정책과장 등을 역임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취약계층 재기 돕고 소통하는 캠코 될 것”

송종의 캠코 광주전남본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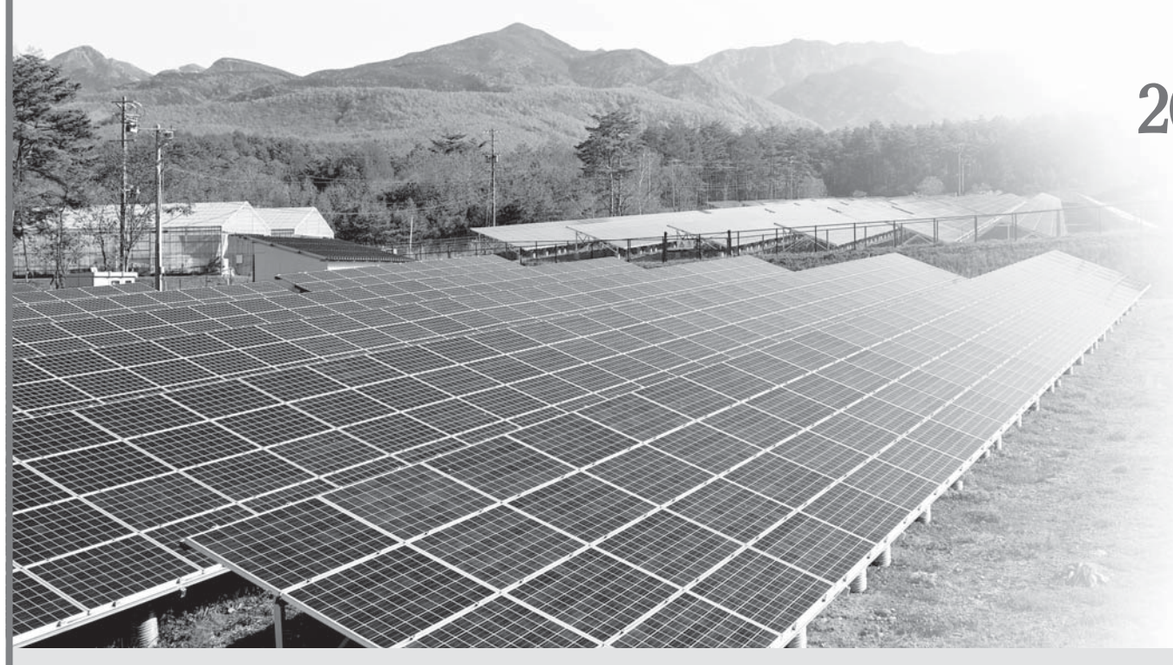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민 등 경제 취약계층의 재기를 돕고, 지역과 소통하는 캠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일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본부장으로 부임한 송종의(55) 신임 본부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금융채무자 지원을 통한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겠다”며 “지역아동센터와 교류하는 캠코 브러리 등 사회공헌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 정읍 출생인 송 본부장은 선린인터넷고와 중앙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89년 캠코 전신인 성업공사에 입사한 뒤 캠코 경기와 대전·충남, 전북 등 지역본부 부본부장과 조세채권관리처 처장 등을 역임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태양광발전소 선착순 분양!!



20년 장기계약으로 안정된 연금식 소득 보장
금융이자소득에 비해 높은 수익률 보장

분양 예정 지역
고흥 / 해남 / 여수 / 순천 / 광양 / 강진
남원 /영주 / 음성 / 김천 / 천안 등
100kw / 150kw / 200kw / 300kw / 500kw / 600kw / 700kw / 1MW 등
※ 각지역 맞춤형 발전소 가능

● 인허가 및 시공 ● 각 지역 지사장 모집

한일솔라에너지
상담전화 0505-337-3500 0505-362-9000
대표전화 1522-3097 / FAX 0505-313-3500
본 사 광주광역시 북구 독립로 349(중흥동 665-29)